

Standing In Faith

하늘꿈중고등학교 소식지

SUMMER, 2022



Contents

3	하늘꿈 서신	북한 주민을 위해 올라
4	하늘꿈 기획	학부모 캠프
7	하늘꿈 가족	한국어 교사 김일권
10	하늘꿈 르포	우크라이나 모금
12	우리들의 이야기	기숙사 십계명
14	하늘꿈 열매	조은경 졸업생
17	하늘꿈 소식	
18	공지사항	
19	후원자 명단	

° 2003년 개교한 국내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1호.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 좋은씨앗이 운영하며 서울, 경기 지역에 8개의 가정형 기숙사 운영

° <수상> 통일부장관상(2001), 국무총리상(2002), 한국감리교선교대상(2002), 서울시장상(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2009), 세계여성자원봉사단체 소롭티미스트 루비상(2012), 자랑스런 정신동문상(2017), 경기도교육청 연구학교 우수 평가 및 교육감 표창(2019),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2021), 통일부장관 표창(2021)

° <외부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0), 미국 국무부 ‘탈북청소년 리더십 프로젝트’ 선정(2011), 통일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매뉴얼’ 개발 공동연구(201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운영 외부평가단 평가 우수학교(2012),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3), 서울시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사업 평가 우수 등급 획득(2014), 공동모금회 북한이탈학생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015),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북한이탈학생 특성화교육 지원 사업 최우수 등급 획득(2016), 교육부 지정 통일준비(시범)학교(2016), 경기도 교육청 『연구학교』 선정(2017~2018)

° <하늘꿈학교 사명선언문> 하늘꿈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자유민주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이루는 일꾼으로 양성합니다.

° <핵심가치> Integrity(온전함), Frontier Spirit(개척 정신), Incarnation(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Hope in Christ(소망의 인내), Next Generation(다음 세대)

북한 주민을 위해 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10

삶의 권리를 빼앗긴 북한에도 봄은 가고 여름은 오고 있는가?
고난의 행군때 강냉이에 풀을 섞어 풀죽을 먹었다고 아이들은 증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푸름이 북한에도 있는지 궁금증을 동반한 근심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모든 국경을 폐쇄한 북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흰색 군복을 입은 김정은이 핵 선제 타격을 공언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북한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늘꿈학교는 근심이 더해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 홀로 탈북한 죄책감, 외로움, 정착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들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잘 성장하다가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정서가 불안해지면 바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한 학생이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남한을 택했고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공부, 생활 태도, 남에 대한 배려심도 으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며 우울감을 보였습니다.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구직 사이트에서 찾은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심부름인 줄 경찰에 붙잡히면서 알았습니다.

학생의 잘못이라면 그것이 불법인 줄 몰랐던 무지를 탓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기도하며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다른 삶을 살고, 적응한다는 것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하늘꿈학교는 이 아이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에 아이들 하나하나 품으며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보고 싶은 엄마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힘든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훗날 이 아이들이 고향의 재건과 복음 전파에 기여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우리의 근심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이 기쁨이 될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근심을 뛰어넘는 크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과하며 아이들은 학교를 섬기는 모든 분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며 전진하겠습니다. 🌈

하늘꿈 학교장 임 향자

2022 학부모 캠프, “사랑해, 언제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3-5



가정의 달인 5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봅니다. 서로여야만 하는 특별한 관계지만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기보다 당연한 존재를 향한 무심함이 더 크게 자리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멀고도 애뜻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온기를 일찍 잃고 오랜 시간이 지나 만난 엄마는 낯설기만 합니다. 이제야 나를 찾았다는 원망에 반가움을 숨긴 채, 마음의 빗장을 닫고 동굴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의 행보는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지나온 아픔 속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의 골은 깊기만 합니다.

학생들의 심리 정서상 문제는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마음의 병은 가정의 회복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피하기만 했던 문제를 직면하고 서로 알아가며 숨겨진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학교는 이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캠프’를 기획했습니다. ‘복된 가정으로의 회복’을 주제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하여 학교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교육하고 있는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3월의 끝자락, 강화도에서 열린 1박 2일간의 학부모 캠프 여정과 가족의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3월 30일

- 학교 집합
- 학교 안내
학교의 비전 나눔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진로 지도 및 진학 현황 안내
- 식사 및 오리엔테이션
담임과 함께 하는 식사
참가자 대상의 캠프 오리엔테이션
- 캠프장 도착
-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찾았다, 내 엄마” 우리 엄마의 손을 찾아라!
“찾았다, 내 아이” 우리 아이의 발을 찾아라!
- 집단 상담 프로그램
기독교 심리상담사 강의, ‘말의 힘’
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말로 마음 표현하기
- 예배 및 기도회
- 취침 미션, ‘자기 전 30분 대화하기’

3월 31일

- 퇴실 및 아침 식사
- 러브레터 쓰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
- 캠프 소감 나눔
함께 시간을 보내며
- 점심 식사
- 체험활동
루지 체험
- 설문 작성 및 마무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김일권입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입 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이 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교사 김일권



비전의 시작

저는 중학생 때 중국에 유학을 갔고 중국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녔습니다. 중국 대학 생활 중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며 이들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에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 인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북한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친구들에게 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공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졸업 후 하늘꿈학교를 알게 됐고, 이곳에서 북한의 아픔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지원하게 됐고 현재 한국어·중국어 수업, 찬양팀, 기숙사 생활 교사 등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과 첫 바다 여행



2021년 중1,2반 학생들과 에버랜드 견학



학생들과 마라탕 맛집에서

복음의 시작

저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이 탈북하다 브로커에게 속아 중국 남자와 결혼하여 태어난 이 학생들은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왔거나 한국어를 못해 따돌림을 당했던 학생들은 한국에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단지 어머니를 따라 왔기 때문에, 중국의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대부분 이혼 가정이며, 어머니 홀로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적습니다. 국가·언어·가정의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하고 안타깝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또한 북한의 아픔 중 한 부분이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 중국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학생들도 낯설기만 한 학교에서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에 안도하고 마음을 쉽게 엽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고민 상담도 해주니 저를 많이 의지합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첫째로 한국에서의 적응이 너무 어렵고 둘째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친아버지와와의 이별이고, 바쁘신 어머니와의 적은 소통입니다. 학생들과 상담이 끝나면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당도록 언제나 성령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

힘든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함께 생활하며 웃다 보니 아주 작은 변화지만 학생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는 중국에서부터 바보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라며 부정적으로 말했던 학생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괜히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와서 힘들기만 하다며 분노에 찼던 아이가, 어머니께 먼저 사과하며 꽃을 선물해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마음과 한국어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곳에서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한 학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러 문제로 아픔을 겪던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기숙사 생활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과 대화하지 않았다며 타인과의 대화를 꺼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그 학생과 인생에 대해, 그리고 힘들었던 점들을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보고 최근 몇 년간 처음으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된 사람이라며, 저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학생이 사춘기가 오고 잘못된 일에 대해 혼을 낸 이후 큰 상처를 입고 저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에 있으면 의자를 가져와 이야기하자고 했던 학생이 저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의 태도를 보며 어릴 때부터 겪은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마주하고 흡수하게 됩니다. 저 혼자서는 이 아픔과 상처를 감당하지도 풀어주기도 어렵습니다. 매일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수업과 맡은 여러 일로 바쁠 땐 학생을 상대하며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지혜롭지 않게 학생을 대할 때가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날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죽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교만함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 혼자서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후원자님들께서 이들 또한 북한의 아픔이고 눈물이자 한 줄기의 찬란한 빛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숙사 학생들과 카드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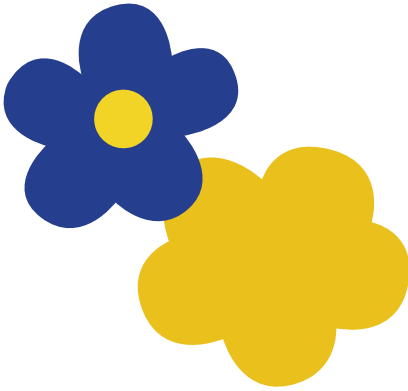


기숙사 예배



하늘꿈 월요 예배 찬양 인도

Pray for 우크라이나



지구 반대편이라도 버려진 고아와도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처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건지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정언 명령인 ‘이웃 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은 21세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쟁을 만들고 수많은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역사가 아닌 현실에서 마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희미한 관계성을 생각하며 힘없이 지켜보기엔 도와야 할 대상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신분도, 국적도 따지지 않고 길에 쓰러진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하늘꿈의 작은 손길을 모았습니다.



Step 1. 학생회장(고3, 송일)이 전하는 학생들의 모금 활동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1세기에 전쟁이라니...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사상자와 1,0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저도 탈북 과정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학생회 차원에서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지만 처음 해보는 활동이기에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용기가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모금 준비

학생회장단의 동의 여부 > 구체적인 방안 논의(모금함 준비 및 설치, 모금 대상, 기간, 전달 방법 등)
> 홍보(하늘꿈 콘텐츠 제작팀의 포스터 제작) > 각반 임원을 통한 학급 공지

모금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4월 11일부터 2주간 모금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음료수를, 선생님들께선 커피를 마시는 대신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38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빠듯하기만 한 용돈으로 하고 싶은 것 대신 모금에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늘 도움만 받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많지 않은 액수이지만 이 마음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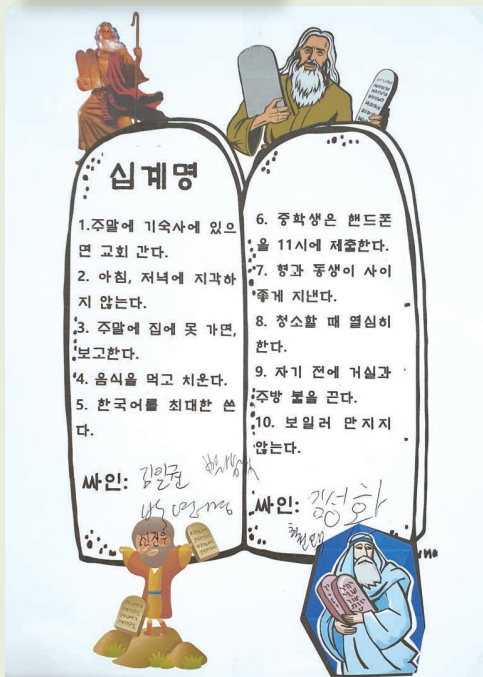
Step 2. 교사가 참여하는 하늘꿈 바자회

주도적인 학생들의 선한 일은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한 교사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학생 모금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도움이 갈급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모금함에 기꺼이 손을 보탰습니다. 더하여 1년에 1~2차례 열리는 하늘꿈 바자회를 평년보다 이르게 개최하여 수익금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물품으로 매대를 채우고 '바자회 오픈'을 알린 순간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물티슈는 한순간에 품절이 됐고 무거운 쌀도 거뜬히 들어 옮깁니다. 판매 수익 전액을 난민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필요보다 더 많은 양의 물건이 선생님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줄 것이 있다는 감사함이 가득 느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모금 성금과 바자회 판매 수익을 합쳐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실천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도 넘치게 전해지길,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함께 만드는 질서, '기숙사 십계명'

광동 기숙사 십계명



기숙사는 양육을 담당하는 하나의 가정이자,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 교사와 제자는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관계가 되고 방을 함께 쓴 친구들과의 추억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살을 맞대고 있는 동안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지켜야 할 분명한 질서는 기숙사 생활 교사 혼자만의 분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일원인 학생들의 책임이 더해져야 하기에 교사와 학생의 합의를 통한 '기숙사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잘 지내자는 마음을 가득 담아 7개 기숙사의 특색이 드러나는 규칙을 정했는데요. 때론 규칙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참고 인내하며 성장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며 기숙사 십계명을 공개합니다.

광동 (은혜의 집) 기숙사 십계명

1. 인사를 잘한다.
2. 자신의 삶을 청결히 한다. (영, 혼, 욕)
3. 기숙사 청소를 잘한다.
4.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5.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6. 학생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한다.
7.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
8. 고전, 양서를 꾸준히 읽는다.
9. 유해한 매체를 피한다.
10. 타인의 소유물을 탐하지 않는다.

삼동 기숙사 십계명

1. 10시까지 기숙사에 오기
2. 저녁 9시 넘어서 세탁기 돌리지 않기
3. 12시부터 잘 준비하고 1시에는 꼭 자기
4. 샤워 등의 활동은 12시까지 하기
5.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 결석 안 하기
6. 매주 화요일 기숙사 모임 빠지지 않기
7. 기숙사 청소 순서 잘 지키기
8. 배달 음식 남은 것 냉장고에 넣지 않기
9. 오가며 인사하기
10. 화장실 사용 후 뒷정리 잘하기

북정동 기숙사 십계명

1. 하루에 감사한 것 하나 생각하기
2. 누군가 들어오면 반갑게 인사하기
3. 밤 11시 이후에 통화와 샤워하지 않기
4. 밤 10시 이후에 세탁기 돌리지 않기
5. 가스레인지 사용 후 중간밸브 꼭 잠그기
6. 화장실 거실, 부엌 사용 후 불 끄기
7. 요일별 청소담당자는 청소 꼭 하기
8. 마스크 잘 쓰고, 체온 재고, 손 씻기
9.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잘 확인하고 버리기
10. 주말과 방학 때 연락 잘하기

귀동 기숙사 십계명

1. 로마서 4장 5~7절 말씀 교훈 삼기
2.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3.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말하기
4. 지금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순간이다.
5. 기숙사에 들어오면 손과 발 씻기
6. 물건 쓰고 제자리에 놓기
7.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8. 문단속 잘하기
9. 타인을 지적하면 나에게 돌아온다.
10. 상대방을 보며 따뜻하게 웃는다.

논현동 기숙사 십계명

1. 식사 후 청소하기
2. 화장실 갈 때 노크하기
3. 10시 전에 귀가하기
4. 11시 이후 샤워 하지 않기
5. 서로 인사 잘하기
6. 열 체크 잘하기
7. 모임에 잘 참여하기
8. 밤에 조용히 하기
9. 9시 30분 이후 세탁하지 않기
10. 10시 이후 추석하지 않기

배려와 사랑의 청담동 기숙사



★ 청담 기숙사 십계명 ★

- 이유가 있다면 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하고, 10시까지 기숙사에 오기.
- 밤 9시 넘어서 세탁기 돌리지 않기.
- 밤 12시부터 조용히 잘 준비를 하고, 1시에는 무조건 자기!
- 샤워나 거실에서 공부하는 것 등 활동은 밤 12시 전까지 하기.
-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기.
-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는 기숙사 모임에 빠지지 않기.
- 매주 화요일 모임 전/후로 기숙사 대형소, 형소 순서를 잘 지키기.
(바닥->화장실->현관 바닥, 서설->아린->영욱이 순서)
- 배달음식 먹고 남은 음식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기.
-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하기!
- 화장실(머리바라, 휴지 등) 사용, 뭐 먹고 나서(싱크대, 식탁 닦기 등) 뒷정리 잘 하기



청담동 기숙사 십계명 이야기

생활교사 나운서 선생님

기숙사 모임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3~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한 후,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자고 했어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평소 불편했던 것, 확실하게 정해졌으면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저는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로 참여했어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어요. ‘서로 행복한 공동생활’을 위해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랐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도 신경 쓰던 부분이 논의됐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도 잘 정리됐어요. 제 생각보다 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교사와 아이들 모두 동의한 최소한의 규칙이라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평소 성실하고 깔끔한 편이라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청소나 냉장과 관리는 아직 약간의 잔소리가 필요해요. 그래도 십계명으로 정한 규칙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처음 십계명을 정하면서 아이들이 무리한 의견을 내놓거나 참여를 거부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성숙한 태도로 참여하고 서로 기숙사에서 마냥 편하게만 있으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규칙을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임서설

십계명을 정할 때 기숙사 생활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딱딱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며 정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고 서로 성장할 모습이 기대됐습니다. 우리 모두 기본 매너를 가지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생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번째 계명(12시에 잘 준비하고 1시엔 취침)을 지키는 게 조금 힘이 듭니다. 시험 기간엔 공부를 2시까지 할 때도 있고, 지금 성장기라 밤에 배고플 때가 많아 야식을 먹고 싶을 때도 많고, 친구와 밤새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양해를 구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하는 공동체 모두 서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놀기도 하지만 돕고 응원해주며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거죠. 때론 마음이 안 맞기도 하지만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담동 기숙사는 앞으로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돌에 핀 꽃, 만개한 하늘꿈의 자랑

좋은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알고 싶은 존재는 가족입니다. 멈추지 않고 성장을 거듭하는 은경이는 이번에도 노력의 결실을 들고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에게, 언니에게 보여주듯 자랑스럽게 꺼낸 학위논문에 선생님들은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2017년 하늘꿈 봄 소식지에 자신을 소개한 은경이는 5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꿨고 그 이야기가 궁금해 또 한 번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며 대학 졸업 후 은경이가 걷고 있는 길을 소개합니다.



하늘꿈학교 11회 졸업생 조은경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학교 유튜브 채널 The Seeds 영상을 촬영할 때가 작년 5~6월이었으니까 선생님들을 본 건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7월부터 석사 논문을 시작했는데 논문에 실을 작품을 추가 제작하고 완성하느라 정신없이 지냈어요.

2017년 인터뷰할 때가 대학교 3학년(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학과)이었는데 그간 석사까지 마친 거네요?

네, 대학교 졸업 전에 취업을 먼저 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 진학도 했고요. 첫 직장에 다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 대기업에 지원했는데 대리직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이직하고 일하면서 제가 아트적 성향이 강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졸업 전시를 준비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더 가치를 두는 일에 매진하고 싶어서 대기업 퇴사를 감행했죠.

일과 학업을 병행한 거네요. 제 앞에 있는 이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해줄 수 있나요?

대학원 1학년 때부터 아르누보에 관심이 있었는데 깊게 파고들다 보니 아르데코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르데코 양식의

작품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아르데코 양식의 입체적 표현기법을 활용한 트렌치코트 디자인 조형성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어요. 무엇보다 논문을 쓰기 위해선 작품이 나와야 해요. 추가 작품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 통과가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과정을 거쳐 이렇게 논문이 나왔으니 저도 기뻐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지 가능할 수가 없는데 논문 과정에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 논문 주제의 선행 연구 사례가 없다 보니, 목차 설정할 때 긴 시간이 소요됐어요. 교수님께서 다음 학기로 미루자고 할 정도로요. 최종 제출할 땐 잠을 너무 안 자서 그런지 심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할 일도 많은데 잠은 왜 자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버티다 졌겠다 싶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에피소드가 잠을 잔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탈복하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생긴 강박이예요. 대학생 때 커피로도 부족해서 잠 안 오는 약을 먹으면서 찜질방 가서 공부했으니까요. 이곳에 적응하고 남한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홍익대학교 졸업



회사 재직 당시



21FW시즌 준비



대학원 졸업 룩북 촬영

학업에 매진하다 잠시 멈춘 시기인데, 석사과정을 마친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논문 쓸 때는 ‘끝나기만 해봐라. 해방이다.’ 했는데 결국 시작과 끝은 반복되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열심히 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목표를 잡고 도전해야 할 시작이 다시 눈앞에 놓인 거죠. 석사를 시작할 때나 성취감을 얻었을 땐 박사까지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해야만 하는 이유요. 떠밀려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의미를 찾게 됐을 때 박사 과정에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왔는지 궁금해요.

하늘꿈학교에 다닐 당시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 휴학하고 학업을 놓으려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병원도 같이 가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논문으로 너무 힘든 날 강윤희 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은경아,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안 그래도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늘꿈을 졸업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는 건 엄마잖아요. 그때마다 학교와 선생님들이 생각나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현재의 저를 보며 판단하지만 하늘꿈은 아무 불품 없던 때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가족처럼 모두 알고 있으니 그런 존재에게 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여전히 졸업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신앙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저는 우선 내 할 일부터 하고 기도하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과제가 기도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사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져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때예요. 하늘꿈 선생님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 행복한 게 보여요. 저는 제 일로 인해 행복하네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행복한 얼굴을 해요. 그 감정의 복받침이 느껴져요. 제 일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감동을 저도 느끼고 싶어요. 성경책이 지금 책장에서 식탁까지 나왔으니 오늘도 성경을 읽어야죠.

어머니의 뜨개질을 보며 디자인을 꿈꿨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가요?

부모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일기장을 보면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셨으니 나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적혀있어요. 열심히 사는 힘은 부모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 일을 너무 좋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은 힘들어도 집에 오면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자요. 그리고 다음 날 그걸 만들어보고요. 한 디자이너께서 제 손을 보더니, 1,000명 중 1명이 타고나는 손 끝 근육이 발달했다면서 천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싱 할 때도 끝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머니의 뜨개질을 보며 디자인을 꿈꾼 건 어찌 보면 제 비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돌 위에 핀 꽃 유금박물관 초대전 작품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졸업 전시



대학원 졸업전시

통일 후 북한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북한에선 패션이란 걸 접하긴 힘들 거예요. 있는 집 자식들이나 패션을 공부하니까요. 통일이 된다면 진짜 북한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치는 대상이 대학생이건 초등학교생이건 상관없이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패션이 무엇인지, 디자인은 어떻게 뽑아내는 건지, 그리고 누군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브랜딩의 방법 등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일을 통일 후에도 이어서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아직 방향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나에게 최선은 무엇일까?’ 스스로 계속 질문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3시간 열심히 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24시간을 다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책을 해야 해요. 그리고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오늘 지난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렇게 살다 죽을 건지, 대신 없는 이 삶을 그대로 버릴 건지, 그게 자신의 선택이라면 거기에 책임을 지면 돼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늘꿈학교란?

그냥, 고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새로 태어나고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모두 보고 다독여준 존재니까요. 정말 제 모든 걸 아는 분들이 계신 이곳을 저는 너무 사랑해요. 🌈



조은경 졸업생의 또 다른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The seeds 를 검색하거나 우측 QR코드로 확인해주세요.



I. 신앙 PART

하늘꿈학교 교육의 기초

고난주간 행사

고난주간을 보내며 학생들과 선한목자교회 마당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 7코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당하신 일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까지 각 사건이 동상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성경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고난받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I. 지성 PART

통일시대에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노력

법률교육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하는 법률교육이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올해 첫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작동되지 않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법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북한과 근본부터 다른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배우는 법률교육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필수 정보의 습득을 넘어, 북한의 변화를 꿈꾸는 사명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공연 관람



■ 음악을 즐기는 학생들이 모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파르티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모차르트와 가브리엘 포레의 곡으로 채워진 공연은 라이브 연주의 생생한 현장감을 체험하고 예술적 감성을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 봄의 길목인 4월,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의 회의록을 다큐멘터리 음악극으로 펼쳐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문화생활을 통해 고3 학생들은 대입 준비에 지친 숨을 고르면서도 아픈 역사 속 독립을 향한 당시의 열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III. 인성 및 건강 PART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학생의 솔직한 응답과 비밀 보장을 위해 개별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뒤이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징후, 대처 및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예방 교육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북한·중국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폭력의 정도가 매우 다르기에 죄의식 없이 했던 행동이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브 프로젝트

환경보호를 넘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토브 프로젝트’는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없는 날, 텀블러 사용의 날, 잔반 없는 날, 휴지 절약의 내용을 담은 에코 포인트 챌린지가 4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챌린지에 참여한 학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두 달간 포인트 누적 수가 가장 많은 학생에게 청소 면제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흥미로 시작한 학생들도 결국 토브 프로젝트의 가치에 동의하는 실천적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IV. 남북통합 PART

사람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현장

생수의 강 교류

2020년부터 시작된 생수의 강 기독교교와의 만남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올해 첫 만남은 4월,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됐으며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간단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 하늘꿈 학생들이 수지선한목자교회를 찾아가 풋살장에서 함께 체육 활동을 하며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가까워진 학생들은 한반도 지도의 조각들을 찾고 온전한 한반도를 완성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 된 나라, 통일에 대한 소망을 공유했습니다.



공지사항

하늘꿈학교 카카오 채널 오픈

채널 내용

하늘꿈 교육의 비밀	필름 안에 담긴 우리의 고백	참 소중한 우리의 일상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탈북청소년 맞춤 교육 커리큘럼	북한의 복음화를 향한 메시지, The Seeds	사계절 소식지, 소소하 고 따뜻한 러브레터	힘들게 꺼낸 이야기를 그려낸, 기도 편지

영상과 소식지, 그리고 기도 편지 등 하늘꿈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하늘꿈학교'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1:3 탈북청소년 양육

1:3 탈북 청소년
양육이 무엇인가요?



**셋이 함께
기도 하고
후원 하고**



1. 3명의 후원자는 신청하신 순서대로 한 팀이 되어 1명의 학생을 후원합니다.
2. 학생의 월별 근황을 3명의 후원자에게 동시에 보내 드립니다.
3. 월별 근황을 보시고 양육 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31-758-2071)

▷ 기도해주세요

1. 하늘꿈 공동체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게 하소서.
2. 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6월, 모든 외부 일정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즐거운 여정 되게 하소서.

후원자명단

< 2022년 2~4월 후원자 >

<개인후원>

NMK 갈성호 강건 강경인 강대용 강문호 김은애 강보경 강선영 강선희 강성환 박난숙 강수진 강승현 강영옥 강유정 강윤모 강은주 강진홍 강진희 강홍재 경순미 고관영 고남숙 고대현 고문주(이정은) 고순예 고애순 고영진 고원복 고주희 고준호 고차원 고한승 고현희 곽원섭 곽호진 곽희령 구경희 구병삼 구효민 권대영 권상영 권세용 권영미 권윤옥 권은숙 권익환 권진희 길종두 김강석 김경곤 김경우 김경옥 김경의 김경이 김경준 김경하 김경환 김경희 김계자 김고운 김공순 김교식 김규미 김근희 김금송 김기태 김기홍 김다인 김대열 김덕수 김동섭(풀무원드림상사) 김동현 김만희 김목화 김묘선 김무수 김미경 김미경 김미나 김미라 김미선 김민규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보경 김보연 김상환 김서연 김선중 김선희 김성균 김성미 김성식 김성영 김성은 김성현 김세정 김소영 김수민 김수정 김순복 김순애 김승범 김승희 김신애 김아미 김아영 김여한 김연중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득 김영환 김영희 김예은 김예주 김옥자 김용미 김원아 김유라 김유리 김은경(홍은경) 김은덕 김은란 김은미 김은수 김은희 김민애 김민애 김민을 김일권 김일희 김정미 김정희 김정환 김정호 김준희 김주연 김주희 김준호 김준희 김준희 김지근 김지수 김지연(꿈의씨) 김지인 김진숙 김창석 김창숙 김창진 김태연 김필수 김필준 김하림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형애 김형준 김혜인 김혜진 김호성 김화영 김훈성 김홍순 김희연 김희정 나옥 나운서 남광우 남금행 남소영 남정희 남준규 노금자 노상근 노석근 노재열 도태우 도혜진 라승남 라주영 류극희 무명 문수정 문영보 문윤태 문재은 문형석 박가영 박경수 박경희 박귀영 박근양 박기완 박나래 박나희 박동소 박동찬 박미숙 박미영 박민호 박박박 박범도 박사라 박선여 박선영 박성숙 박성은 박성희 박세종 박세호 박수경 박수영 박신영 박옥순 박유정 박유찬 박운서 박은숙 박은영 박재원 박정자 박종영 박주향 박지연 박지영 박찬수 박창수 박천희 박태규 박현선 박혜경 박혜영 박호준 박호정 박효은 배경자 배민철 배선애 배연옥 배유미 배재범 배정인 배현규 백기범 백시연 백창현(박세정) 변창수 서동민 서성재 서진덕 서원희 서은광 서정숙 서창오 성재우 소정성 손경연 손민영 손영환 손주호 손혜경 송미화 송영호 송예진 송옥기 송은주 송재원 송준옥 송현섭 송현혜 유성혁 신기루 신기원 신다혜 신미령 신민주 신서원 신성순 신수지 신수진 신승일 신윤미 신재경 신현주 신현호 심경희 심보라 심재현 심현식 안상미 안성숙 안옥선 안종성 안지영 안지혜 안진규 안진화 안화자 양부현 양승달 양유성 여인목 연선아 오민아 오민택 오상윤 오유태 오은수 오찬석 오화봉 옥승남 우선숙 우하영 우현정 원두연 원용순 원희석 위영태 위정현 유병준 유병옥 유성우 유성은 유수연 유용만 유은희 유동명 유지영 유지혜 유현숙 윤경원(파남) 윤광우 윤동일 윤미선 윤미희 윤보라윤상희 윤수미윤용한 윤지강 이건용 이경렬 이경옥 이경임 이경희 이광명 이기승 이낙영 이능경 이능주 이완란 박미란 이명현 이문기 이문중 이미지 이민근 이민옥 이병일 이병희 이부길 이상미 이선아 이선자 이선주 이선희 이성국 이성옥 이성우 이성후 이성희 이수미 이수하 이숙향 이순구 이승용 이신형 이예은 이완준 이원미 이원순 이우정 이우정 이우주 이은선 이은정 이은진 이인하 이재경 이재동 이재영 이재익 이재준 이재훈 이정숙 이정원 이정은 이정인 이정희 이준필 이종경 이종원 이주성 이주연 이지애 이지은 이진 이진규 이진숙 이진주 이창화 이철용 이철아 이태만 이태용 이학숙 양영숙 이한나 이혜든 이현숙 이현숙 이현아 이혜숙 이호현 이효순 이후남 이훈희 이희라 이희린 이희순 이희현 인지연 임경아 임다솔 임석원 임여진 임영옥 임유라 임윤아 임은 임은주 임재경 임현주 임형목 임혜정 임희숙 장경란 장귀옥(장대보라) 장동현 장성옥 김준희 장세환 장순덕 장연지 장영 장익진 장진실 장한나 전계화 전성기 전수정 전유화 전태숙 정경란 정경희 정동원 정미선 정미순 정민호 정병윤 정성운 정소정 정시영 정연정 정영선 정요한 정웅섭 정유진 정윤경 정은희 정재우 정재한 정재훈 정주화 정지희 정진근 정진수 정창우 정행자 정혁준 정현강 정희경 제갈민정 조명희 조미숙 조상준 조성라 부성범 조성민 조연행 조영광 조영란 조오재 조윤경 조재숙 조정희 조진희 조찬영 조한 조현옥 조현정 조혜원 조혜숙 조홍희 조희준 주민선 주우진 주익숙 주혜정 지인혜 지미현 진희주 차은경 차홍선 채경령 채수련 천윤정 최대환 최명옥 최민수 최선미 최성업 최성용 최성이 최수는 최숙희 최영순 최영자 최영향 최영화 최옥수 최윤정 최윤지 최은실 최은주 최인섭 최준호(이은주) 최창일 최철환 최해연 최형숙 추수경탁지혜 태수길 태원우 하세호 하유진 하은희 하진희 하창직 하한, 서승희 하혜숙 한규화 한상영 한인란 한재희 한정에 한정희 한지연 한진용 한준자 한현진 한혜경(김기현) 함재연 함혜주 허순영 허영미 허진 허혜림 현은주 홍기람 홍가는 홍기옥 홍미영 홍요섭 홍원표 홍은주 홍현정 홍혜진 황광옥 황상덕 황은혜 황인자 황정희

<단체후원>

(취경도기술 (주)니코글로벌 (주)브러쉬랩 (주)유한조경개발 (주)인터케어 (주)제이앤비컨설팅 (주)휴온스글로벌가락동부교회 강서침례교회 공검서부교회 광성교회청나비산교회 권선제일교회 글로벌엘리미선 기쁜교회 남산감리교회 내동교회 내수동교회 능곡제일교회 더프레임종합건설 돈암감리교회 동광교회 동송교회 드림교회 무명_교회 미아중앙교회 반석교회 북아현성결교회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사랑과은혜교회 사랑하는교회 산성교회 삼성교회 상계광림교회 새빛전원교회 생수의 강 기독교교 서문교회 선단화목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선한목자교회 총연합어선교회 성남제일교회 세신교회 수지선한목자교회 엔게디카페 스마일공인중개사사무소 시흥하늘교회 신촌감리교회 신촌장로교회아들람 선교회 아산병원진단검사의학과 아현감리교회 영광해서부자되기방 예수님의사람들교회 옥토교회(원성웅) 와이즈스터디 우리들교회 위례광명교회 권사회 일산광림교회 정동제일교회 제자들과교회 주님사랑교회 주식회사강 중곡교회 지구촌교회 목장지구촌교회 통일선교팀진남제일교회 참빛교회 창일교회 최기은&안미라굿댄스 큰은혜교회 통일저금통 _단체포트웨인한인제일장로교회 하늘가족교회 하늘마음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사회봉사회한나회 한빛교회 할렐루야교회 통일선교 함께지아가는교회 행복나무교회 혜성교회

<물품후원>

(주)다비죽종 (주)원원무역 (취경도기술 김지연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송연 유승희 임성민 정동제일교회

하늘꿈중고등학교에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름은 실지 못했지만, 학습 봉사, 주방 봉사 등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위 후원자 명단은 후원금 계좌에 입력된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후원 관련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하늘꿈학교로 연락 주시면 우편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 (사)좋은씨앗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후원을 해주신 개인 및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늘꿈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방법>

1. 하늘꿈 프렌즈(자원봉사자)

주방 봉사, 1:1 과외 지도, 행정 봉사 등

(하늘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www.hdschool.org 에서 신청. 요청 시 봉사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2. 후원

정기 후원(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물품 후원(식품, 의류,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기념일 후원 등
후원계좌_국민은행 331301-04-096542 사단법인 좋은씨앗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

연락처 | 031)758-2071 | www.hdschool.org

* TOV PROJECT

하늘꿈학교 소식지는 종이와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